

‘붉은 말 기운 품고 힘차게 비상하라’...광주시·전남도체육회, 병오년 새 설채

“‘명품 스포츠도시 도약’ 원년으로” “‘새로운 100년’ 여는 원대한 시작”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명품 스포츠도시 광주 실현’을 비전으로 엘리트체육 경쟁력 강화와 시민 체육복지 확대, 2028년 전국체전 개최 준비 등 분야별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겠습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병오년 새해 “엘리트·학교체육 경쟁력 강화, 시민 참여 확대와 균형 있는 체육복지 실현,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체육시설 운영, 2028 전국체전 성공 개최 기반 조성 등 5대 분야 28개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참여 확대와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도 제공한다.

이에 전 회장은 “대한체육회 및 스포츠클럽 사업 등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5개 자치구체육회 주최 대회를 확대해 시민 누구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는 등 스포츠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체육행정에서도 투명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혁신을 도모한다.

전 회장은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AI 기반 스마트 행정 시스템 도입, 투명



한 시설을 제공하겠다”며 “화재, 인명사고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해 재난 및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시설별 안전관리 매뉴얼을 두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안전사고 제로를 목표로 꼼꼼히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올해 2028 광주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 전담 부서 구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종목별 선수 경기력 향상 프로그램 강화, 시민 참여 붐 조성, 경기장 시설 확보 및 개보수 등 단계별 준비를 본격화한다.

특히 21년 만에 광주에서 개최하는 체전인 만큼 대회 ‘운영 분야와 시설 분야’로 나뉜 광주 소속(출신) 선수들의 대거 참가 및 광주 관내 모든 체육시설 점검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전 회장은 “2026년은 2028 광주 전국체전을 향한 중요한 도약의 해”라며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체육회, 명품 스포츠도시 광주를 만드는 원년으로 삼고 임직원 모두가 하나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시했다.

송 회장은 “올해 전남도체육회는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체육행정 시스템 고도화와 회원종목단체 평가·등급심의를 통해 선진적인 행정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임·직원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과 청렴·인권 교육, 진단컨설팅 대비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 AI 시대에 걸맞은 체육행정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령을 핵심 키워드로 한 브랜드 강화 전략을 추진해, 전남도체육회

회 참가 확대를 통해 전남체육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전남 출신 선수들이 국내 무대를 넘어 세계무대에서도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해 유소년부터 성인까지 이어지는 선수 발굴·육성체계를 공고히 한다.

송 회장은 “전남도스포츠클럽체육대회 개최, 지청·공공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스포츠체험캠프 및 체육영재 발굴 캠프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할 예

건강한 체육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도모 투명·공정 기반 AI시대 걸맞은 체육행정 시스템 구축 국제스포츠 교류 확대 전남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

가 명실상부한 전남체육의 컨트롤타워로 소통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전문체육 분야에서 주요 전국대회 참가를 적극 지원하고, 우수선수의 체계적인 육성·관리와 전문체육지도자 운영을 통해 경기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송 회장은 “선수 맞춤형 지원과 단계별 육성 전략을 통해 유망주 발굴부터 엘리트 선수 성장까지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육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전략종목 집중 육성, 실업팀 창단 및 운영 지원, 국제종합경기대

정”이라며 “전남스포츠과학센터 지원 확대와 과학적 훈련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전남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적극 뒷받침하고 각종 전지훈련 유치, 국제교류 확대 등으로 전남을 전지훈련의 중심지이자 국제 스포츠 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송 회장은 마지막으로 “2026년은 전남체육 8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공정한 행정과 체계적인 육성,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으로 전남체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굳은 각오를 밝혔다. /박희중 기자

광주시체육회, 지속 가능한 스포츠클럽 확대

광주시체육회는 빛고를 시민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도 지정스포츠클럽 확대를 수립해 추진한다.

이번 확대 계획은 엘리트 생활 학교체육을 연계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참여하는 스포츠로 전환하는 등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스포츠클럽 소속 청소년 선수 육성에도 중점을 두고, 생활·학교·엘리트체육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성장 경로를 구축해 지역 스포츠 인재 발굴에도 힘쓴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체육회와 등특스포츠클럽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정스포츠클럽 전환을 희망하는 클럽을 대상으로 업무 매뉴얼 제공, 행정 컨설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정스포츠클럽이 되면 각종 스포츠클럽 국비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공공체육

전갑수 회장 “스포츠클럽은 지역 생활체육 핵심 플랫폼”



광주빛고을스포츠클럽이 참가한 2025 스포츠클럽 탁구 교류전 모습 <광주시체육회 제공>

시설 사용료도 전액 감면되는 등 소정의 혜택이 주어진다.

대한체육회 등 중앙단체 국비 확보 대응을 강화해 지정스포츠클럽 전문 선수반 운영, 종목별 특화프로그램 개발 등 스포츠클럽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한다. 또 전국 단위 스포츠클럽 교류전 참가도 확대해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광주 스포츠클럽의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28년부터 광주에서 개

최되는 전국(소년)체전에 스포츠클럽 소속 선수들이 대거 참가해 광주 개최라는 상징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올해는 스포츠클럽이 지역 생활체육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국비 공모 대응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지정스포츠클럽 확대와 자립 기반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스포츠클럽 운영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육상 국가대표 상비군, 해남·진도서 동계전훈련

전남 육상의 미래 기대주가 포함된 국가대표 후보선수들이 지난 5일부터 진도 공설운동장과 해남 우슬경기장에서 동계합숙훈련을 실시한다.

중·장거리 선수단 37명은 오는 21일까지 진도공설운동장에서 훈련을 실시하며 도약분야 선수단 38명은 오는 12일부터 2월1일까지 해남군에 캠프를 차린다.

12일부터 2월1일까지 익산종합운동장에 캠프를 마련한 투척 분야에는 ‘전남 유망주’ 문혜술(포항단지기)과 박지성(해머단지기, 이상 전남체고 3년)이 참가한다.

문혜술은 지난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13.58m의 개인 최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하며 국내 투척 종목을 이끌 차세대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다.

박지성은 2024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50.21m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획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육상 국가대표 후보들이 해남, 진도에서 동계합숙훈련에 나선 것은 전남의 우수한 체육 인프라와 온화한 기후

전남 육상 꿈나무 문혜술·박지성, 투척 종목 합동훈련 참가



진도공설운동장에서 동계합숙 훈련중인 육상 중·장거리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 <전남도체육회 제공>

여건이 한몫한 것으로 전남 체육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대외적으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전남도체육회는 이번 동계합숙훈련 기간 선수단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 체육시설 운영 협력은 물론 숙박, 의료, 안전 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예정이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남 육상 스타들이 국가대표 후보에 발탁된 것은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과 현장 지도자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전남이 국가대표 선수 육성과 전지훈련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전남도장애인체육회, 2025년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 ‘A등급’

2년 연속 선정...국비 2억 확보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2025년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2년 연속 최고등급을 유지하며 장애인 생활체육 정책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생활체육지원 확대를 위해 생활체육교실과 동호인클럽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지역 사회 중심 체육 기반을 넓혔다.

또한 전남도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며 체력 평가 및 맞춤형 운동 상담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한 생

활체육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우수 시·도 인증과 함께 올해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 국비 약 2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 예산은 앞으로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박희중 기자

신진서, 상금·승률·연승 3관왕

김은지, 전체 다승 1위

한국바둑의 절대 강자 신진서 9단이 6년 연속 상금왕에 올랐다.

6일 한국기원이 발표한 2025년 결산 성적표에 따르면 신진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12억1천만원의 수입을 거뒀다.

지난해 신진서는 세계대회인 난양배(약 2억6천만원)와 소팔코사놀 최고

승률에서도 1위에 올랐다.

여자대회에서 5개의 타이틀을 석권한 김은지 9단은 총 4억원의 상금을 거머쥐며 전체 3위에 올랐다.

다승 부문에서는 김은지가 남녀를 통틀어 1위를 차지했다.

총 121국을 소화해 최다 대국을 기록한 김은지는 90승 31패, 승률 74.38%로 승률 6위, 연승(11연승)은 4위에 오르며 여러 부문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연합뉴스